

로컬플러스

익산시 민선 6기 공약사업 점검

익산시는 지난 9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7대 분야 50개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공약사업 부서장 및 사업 담당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개 부서 50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올해 주요 추진 실적은 작은 미술관 설치,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음면동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16건이 공약사항이 완료되거나 이행일정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다.

혁신교육특구 지정,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뉴딜일자리사업 등 32건은 계획한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원활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면 등 내년 예산확보에 힘쓰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약 이행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 공약 점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이 임기 내 100%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분기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관광 '스마트투어 앱' 으로

군산근대문화지구, 전국 최초 기가와이파이 활용 스마트관광 서비스 제공

군산시가 대표 관광지인 근대역사문화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마트관광'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간여행도시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근대문화지구 여행시 군산근대문화유산 스마트투어 앱'을 설치하면 근대역사박물관, 진포해양테마공원, 초원시진관, 동국사 등 대표 관광지에 대한 스트리밍, 길 안내, 원격 관광해설, 주변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한 토탈관광 시스템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관광 투어 서비스는 군산시 대표관광지에 무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료 와이파이 지역을 구축해 국내외 관광객 유입 및 관광활성화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전국 최초 기가와이파이를 활용한 스마트관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군산근대문화지구는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써, 군산시는 전북도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등을 지원받아 전북투어 패스 구축사업,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콘텐츠 개발, 시간여행도시 홍보, 근대마을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개별 관광정보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여행 정보 이동통신사 등을 활용한 위치정보,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군산의 관광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관광객 유입 전략과 소비 계층에 맞는 콘텐츠 개발 등, 군산만의 특화된 관광정책 수립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관제센터 플랫폼을 전북도와 협성ITX(주), 주KT와 연계 협력해 추가 구축 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의회, 내년도 본예산 균형 있는 편성 요구

강경숙 의원 “작은 예산일지라도 꼼꼼히 따져 빠지는 일 없어야”

익산시는 지난 9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과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익산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회의 경과보고, 2018년 신규 국가예산발굴사업과 대선 공약사업에 대한 설명과 자문, 신규 사업 및 시책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자문위원회들은 군산C~서수 연계도로 개설사업,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 조성사업 등 신규 발굴된 2018년 국가예산발굴사업과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국가기술풀러스터 신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등 6개 대선공약사업에 대한 의견제진과 그 외 다양한 신규 사업과 시책들을 제언했다.

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용범 인전행정국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밸류 단계부터 지역과 국가공모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메카로 급부상

전국 시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군산시에 타 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에서 방문한데 이어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속초시 등에서는 아동 친화 정책에 대한 문의와 방문일정 등을 협의 중에 있다.

이처럼 군산시가 타 지자체의 주목

을 받는 이유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시정목표로 전국 유일의 어린이 행복도시 주제인 어린이 행복도시 주제로 도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상생하는 것이 군산시의 기본 방침이다”며 “2017년도에는 아동권리광장, 유아숲체험장, 수요누리사업 등 어린이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로 풀이된다.

차정희 어린이행복과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최초 시행에 따라 군산시가 개발한 지표와 자료, 다양한 정책을 조건 없이 제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상생하는 것이 군산시의 기본 방침이다”며 “2017년도에는 아동권리광장, 유아숲체험장, 수요누리사업 등 어린이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르는 동요, 동심을 찾아 주는 음악동화 공연과 민화·상영 등 총 27개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시민과 어린이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복주간 동안 어린이 공연장 무료 대관을 실시하고, 관내 어린이집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와 참여가 함께 어우러진 행사추진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린이가 행복을 느끼고 시민 아동 권리인식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어린이 전용 시설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어린이 행복주간’ 운영 성료

군산시가 최근 추진한 어린이 행복주간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어린이 행복주간은 전국 시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도내 최초 어린이전용 공연장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영화상영, 문화·예술 공연, 뮤지컬, 학술제, 세미나, 발표회, 부모교육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군산어린이공연장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번 어린이 행복주간에는 5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행사로는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요 콩쿠르와 청소년 연합 학술제,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행복축제, 문화 페스티벌, 가족이 함께 부

전을 위한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하고 호남인문과기대학 설명회를 가졌다.

협약식에는 호남인문과기대학 방문단 일행과 나의군 총장, 국제교류교육원장, 국제교류센터장, 관련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호남인문과기대학은 중국 호남성 누저시에 위치한 공립종합대학으로 1978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15개 단과대학, 50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국제교류협약 체결, 호남인문과기대학 설명회

